

1. 데이터베이스와 국민생활

사회적 편익을 구현하는 첨병



유경희
HITEL 원로방 대표

“
**음쇼핑이나 승차권 온라인 예매는
 개개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
 이는 데이터의 종합적인 저장과
 완성된 후에 가능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필수적이다.**
 ”

1. 머리말

데이터베이스가 산업화되기 시작하던 20여년전에는 정보탐색자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데이터의 공급에 앞서서 지나치게 제작에만 돈을 썼다. 돈 쓰기만 하는 데이터제작을 영원히 지원을 할 경영자는 없다. 1984년, 뉴욕에서 개최된 “비디오텍스 컨퍼런스”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것은 비디오텍스의 쟁점이 “데이터베이스냐? 트랜잭션이냐?”였다. 국민생활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국민 모두를 정보탐색자로 보느냐 아니면 생활

에 도움이 될 “정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물음으로 바꾸어 본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어느 정도 육성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질문들은 아직도 남아 있다. 확실한 통계는 없지만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데이터도 있지만 트랜잭션이 더 많은 것 같다. 즉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민원서류를 신청해서 집에 앉은채로 받는 것이 데이터보다 더 소중하다. 온라인으로 쇼핑을 해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고 집으로 배달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게 되었다. 비행기나

극장의 좌석예약을 가정에 있는 단말기로서 온라인예약을 함으로써 “줄서기”를 엄청나게 줄이게 되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보내거나 받거나 맡기거나 찾거나 하는 일들을 온라인으로 해치울수 있게 됨으로써 돈의 흐름이 엄청나게 빨라져서 경제개발에도 도움을 주고있다. 오늘날 데이터베이스란 말의 의미의 폭이 넓어진 것같다.

즉 여기에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만이 아니라 각종의 트랜잭션, 이에 필요한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로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고 있는 듯하다. 어느 것이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이다.

2. 부가가치 데이터 (Value-Added Data, VAD)

정보를 검색하는 것 만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군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고 있다.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목적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하자.

그러나 이 데이터베이스가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약간의 가공만 하고 중복되게 수집, 가공을 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생략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작성한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율이 훨씬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재작성해서 성공한 데이터베이스의 사례는 많다.

그러나 이 경우 항상 조정이 잘되지 않고 말썽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저작권문제이다. 가령 통계목적으로 만든 통계데이터베이스를 약간만 더 가공만 하면 훌륭한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은 두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제작기관이 협조해서 하나의 훌륭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것을 기대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우며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등록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세무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토지관리를 위해서도 주택관리를 위해서도 전기, 전화, 하수도, 상수도, 쓰레기 등의 관리를 위해서도 물론 모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들을 모두 따로따로 개발하고 있다. 위의 부가가치 데이터의 기법을 활용하면 다목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업무간의 독립성인지 이기주의인지도 무지 협조해서 하나의 다목적적인 것을 만드려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다. 전화번호부에 왜 우편에 관한 안내가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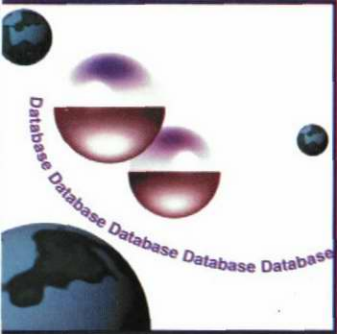
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뛰어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세무서에 가서 비과세증명을 발급받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다른 은행으로 보내고..국민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이러한 행정에 관한 일들이 찾으려고 하는 데이터의 소요보다 엄청나게 많다.

따라서 데이터는 뒷전으로 밀리고 행정전산망의 소요가 더욱 높게 되는 것이 아닐까?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사람에 관한 것은 한곳에서 모든 것을, 물자에 관한 것도, 토지, 주택, 자동차, 전기, 수도, 전화, TV, 돈에 관한 것도 모두 각각 한곳에서 만든다면 혼란은 더 줄어들었을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본다.

3. 국민생활 정보

행정전산망이라면 어딘가 한정된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전산망으로 이해가 된다. 아직은 정보공개와 비공개의 구별이 오늘날처럼 확실하지 않다면 데이터의 소유기관은 당연히 비공개를 택한다. 공개하지 않아도 살아왔는데 공연스리 복잡하게 사서 귀찮아질 것이냐? 라는 심산이다. 이러한 마음을 나무랄 수는 없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소



특집

1. 데이터베이스와 국민생활

유기관에 맡긴다는 태도는 아무래도 옳지 못한듯 하다. 극단적인 예로서 가령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이를 악용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두려워해서 원초적으로 공개를 봉쇄하여 버리게 마련이다. 정보공개와 사생활침해가 서로가 상치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며, 어디까지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가 등 논의가 아직도 충분하지가 않다. 주민등록번호만 보면 금방 나이를 알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처녀에게 나이를 물으면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답변을 꺼리는 것도 사회적인 단면이다. 어디까지가 사생활 침해이며 어디까지가 사생활 침해가 아닌지를 좀 공개적으로 널리 토론해 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마저 사생활 침해로 취급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집 주소나 이름마저 알려지는 것을 사생활 침해로 생각하고 있다.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서비스 즉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함에 있어서 위에 말한 공개여부와 사생활 침해여부의 미확정이 가장 큰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민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이는 당연히 국민의 욕구와 비례한다. 아마도 2-30년전이라면 모두가 의, 식, 주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의식주 같은 정보는 별로 필요없게 되었다. 기껏해야 이를 돈으로 환산해버리는 세상이 되었다. 너무나 경제적인 동물이 되어버려서 욕구마저 거의 모두가 돈에 귀착되어 버린듯 하다. 따라서 정보의 소요도 돈에 관계되는 것만이 중요시되는 듯하다.

한편, 국민생활 정보망이라고 하면 먼저 느껴지는 것은 제한된 사람들만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사용할수 있는 이른바 퍼블릭 서비스(공중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에게 널리 알려도 괜찮을 정보 가운데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데서 찾아야 할것 같다.

4. 맺음말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긴 공중정보통신망인 데이콤의 천리안의 전신의 이름이 "국민생활 정보망"이었다는 사실처럼, 공중정보통신망에 물려있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아직도 온라인 서비스로서의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위주의 온라인망과 트랜잭션 위주의 온라인망이 따로따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둘 모두가 서로 융합되고 있다. 서로의 협조로서 서로의 능력에 상승효과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패턴은 멀티미디어화 되어 가면서 급격이 변하고 있다. 그래픽, 음성, 영상정보의 처리가 능성이 새로운 소요를 창출하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 초고속 정보망이 실현되어 가면서 그 위세를 더욱 높이는 결과가 되어 가는듯 하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혁신적인 새미디어가 등장하더라도 문자 데이터베이스의 수명이 다 되었다고 허탈해진다는 것은 금물이다.

오늘날 새미디어 때문에 현미디어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는 비관론자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초고속이 급속히 발전하더라도 재래식도 그만큼은 못할지언정 그래도 발전하리라 기대한다. 마치, TV가 처음 나왔을때 라디오가 곧 망하리라 예측한 사람들의 예측이 모두 틀린 것처럼... [DC]